

Online Series

2022. 04. 29. | CO 22-12

북한의 신작 영화 <하루낮 하루밤>의 정치적 상징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이 지 순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위원)

명작의 본보기 작품으로 호명되며 6년 만에 발표된 신작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은 '반당반혁명종파' 투쟁과 '수령결사옹위'를 주제로 하고 있다. 예고편 광고와 전국 동시 개봉이라는 이례적 형식은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감각적으로 편집된 예고편은 영화가 스릴러 스타일의 정반탐물 장르로 재미와 몰입을 건인하는 형식임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디지털로 제작된 영화상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시도 또한 주목된다.

이 글은 예고편과 주인공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에 내포된 정치적 상징성과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성은 다음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영화 <하루낮 하루밤>은 1958년의 상황을 2022년에 대입하여 김정은 집권 10년의 성과를 천리마의 기적으로 환유하고, 1958년의 사회주의 완전개조를 2022년의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에 대응한다. 둘째, 대내외적 곤경에 처한 오늘을 전후와 같다고 보고 자력갱생의 유산과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의 지위를 수령으로 격상하여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회문화적 함의 세 가지는 첫째, 대중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둘째, 조선영화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며, 셋째,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현재의 난국을 이겨내자는 것으로 정리된다. '1958년'은 김정은 집권 초기에 사회건설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1970년대식'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4월 9일에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 시사회가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노동신문에 보도되었다. <하루낮 하루밤>은 2016년 11월에 예술영화 <줄업

중>이 발표된 이후 6년 만에 나온 신작이다.¹⁾ 게다가 관련 기사는 작품의 종자와 주제, 구성방식과 세부 형상 등이 ‘명작’으로 완성되었다고 소개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정은 집권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은 북한 영화가 <하루낮 하루밤>을 통해 ‘새 세기 영화혁명’의 포문을 열었다면 내용과 형식에서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노동신문 기사에서 <하루낮 하루밤>은 “한 평범한 처녀간호원의 하루낮, 하루밤 사이의 투쟁이야기”를 통해 “자기 수령을 결사보위하고 자기 제도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라는 주제사상을 깊이 있게 해명”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반당 반혁명종파’ 투쟁을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이를 통해 ‘수령결사옹위’를 고수하는 것이 영화의 종자이자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²⁾ 6년 만에 나온 이 영화는 시사회를 거친 후 조선중앙TV에서 ‘예고편’이 방송되었으며, 태양절 기념 영화상영순간에 맞춰 전국 동시 개봉되었다. 대대적인 영화 홍보는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마케팅 방식이다.

2022년은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게다가 북한 문예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주체문학론’ 발표 30주년도 겹쳐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이 중첩된 2022년에 문화강국의 면모를 높이고, 문학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기 위해 김정은 시대를 대표할 ‘명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발표된 <하루낮 하루밤>은 오랜 부진을 깨고 나온 명작인데다 ‘본보기’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비록 영화의 예고편만 공개되었지만, 관련 기사를 통해 내용을 유추함으로써 이 영화의 정치적 상징성과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명작에 대한 요구와 영화혁명

북한에서 영화는 대중교양의 강력한 수단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문학예술이 당의 문예방향을 철저히 관철하여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식’으로 하고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을 요구했다.³⁾ 그러나 사회주의문명국을 국가건설 목표로 제시하며 문화도 세계

1)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로 제작된 예술영화는 2012년의 <들꽃소녀>, <중군작곡가 김옥성> 1~2부, <폭발물 처리대원> 등이 있다. 2013년에는 <최진연의 작은집>, 2014년에는 다부작 예술영화 <포성없는 진구> 1~5부, 2015년에는 <벼꽃>을 내놓으며 신작의 명맥을 이었다. 제7차 당대회가 있었던 2016년에 <우리 집 이야기>, <북무의 자옥>, <줄업증>을 차례로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신작이 나오지 않았다.

2) “새로 나온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 시사회 진행,” 『로동신문』, 2022.4.10.

3)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적 수준으로 높여야 했지만, 내로라할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2014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김정은은 문학예술이 침체에 빠져 시대의 부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 배우라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영화 부문은 계속해서 답보상태였다. 부진의 원인은 ‘사상적으로 안일한 패배주의’⁴⁾로 진단되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영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촬영설비를 갖추는 사업을 진행했지만⁵⁾ 난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⁶⁾에 대한 김정은의 요구는 문학예술이 “사상의 미싸일”⁷⁾ 역할을 제대로 하여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 같은 명작이 김정은 시대를 대표할 수 있게끔 하라는 주문이다.

명작에 대한 강조는 외부문화 유입에 대항하는 성격도 있다. 북한은 ‘현란한 면사포로 감싼’ 외부문화가 북한 사회에 바이러스처럼 은밀하게 숨어들어와 반동적인 사상을 유포한다고 보았으며 그것의 침투력과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⁸⁾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의식, 취향에 영향을 주는 외부문화 유통을 근절하고자 했다. 2021년 1월에 이르러 국가영화총국은 영화 창작 사업이 ‘형식주의 울타리’에 머물렀음을 인정하고 실력가들을 준비해 ‘조선영화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천명했다.⁹⁾

북한은 한 편의 영화나 노래는 투쟁을 고취할 수도 있고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는 독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대북제재와 감염병 팬데믹은 북한의 대내외적 곤경을 더욱 심화하고 있기에 공동체의 단결은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은 외래문화의 침습을 막아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성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은 제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천만자투의 총검을 대신하고 천만심장의 피를 꿰게 하는 명작들”¹⁰⁾을 만들어 문학예술에 부과된 당의 충실한 나팔수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1.1.

4) “백두의 갈바람으로 침체를 불사르고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5.5.18.

5) 김성룡, “주체영화예술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 영원하리,” 『로동신문』, 2017.2.6.

6)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7)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 『로동신문』, 2018.1.27.

8) 김성남,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하는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 『로동신문』, 2019.1.30.

9) 리광,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갈 드높은 열의,” 『로동신문』, 2021.1.28.

10) “당의 사상으로 고동치고 현실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심장만이 명작을 내놓을수 있다,” 『로동신문』, 2022.1.15.

디지털 영화상표와 스릴러 스타일의 예고편

‘새롭게 형성한 영화상표’는 영화제작사의 브랜드 로고를 말한다. 1960년대부터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천리마동상을,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는 3인 입상을 로고로 사용해왔으며 배경에는 모두 백두산이 있다. 로고가 등장한 다음에는 별다른 음향효과 없이 붓글씨체로 쓴 ‘조선영화’ 문자가 떠오른 후에야 본편이 시작된다. 영화제작사의 명함 역할을 하는 이러한 오프닝을 리더필름이라 한다.

<하루낮 하루밤>의 리더필름은 15초 정도이다. 예고편은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의 로고인 3인 입상을 디지털로 구현하여 ‘20세기 폭스사’처럼 좌우 양쪽에서 조명을 쏘아 올리고, ‘폭스 광파르’와 같은 음향효과를 더했다. 3인 입상의 사각기둥 기단 위에는 국화 ‘목란’이, 좌우 양쪽 사각 면에는 ‘조선’과 ‘영화’가 양각되어 있다. 3D 디지털 이미지로 구현된 ‘영화상표’는 조명과 광파르를 더함으로써 ‘조선영화’ 브랜드를 강화하는 효과를 자아냈다.

1분 정도의 예고편은 정지된 화면을 통해 피사체를 묘사하는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 기법을 응용하여 두 남녀 주인공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내레이션은 ‘희열에 넘쳐 새 생활에 들어서는’ 주인공 ‘라명주’를 중심으로 ‘피로써 판가름되는 준엄한 계급투쟁의 하루낮 하루밤’이 진행될 것을 예고한다. 예고편은 정지와 움직임, 빛과 어둠, 밝은 배경음악과 긴장된 효과음을 대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영화 타이틀을 각인하고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편집되었다. 구멍으로 엿보고 유리창 너머에서 엿듣는 모습은 정탐 활동과 유사하다. 사건을 예고하는 효과음, 물속에 무언가 떨어뜨는 소리, 폭과 소리와 총소리 등 청각 신호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한다. 또한, 어둠 속을 달리는 자동차와 어지러운 전조등 장면은 추격전을 방불케 한다.

“심금을 틀어잡는 력동적인 사건전개, 예상을 뒤집는 극구성의 탐구도입으로 행동의 예술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극적건인력을 비상히 높임으로써 시종 긴장과 격동속에 빠져들게 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의 내막을 끝까지 폭로”¹¹⁾한다는 영화 소개 기사는 <하루낮 하루밤>이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의 범죄를 조사하고 폭로하는 추리물 성격의 스릴러이자 북한식 장르인 정반탐물 유형임을 보여준다.¹²⁾

11) “새로 나온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 시사회 진행,” 『로동신문』, 2022.4.10.

12) ‘정탐물’은 주인공이 적국의 비밀 자료나 정보를 빼내는 첩보활동을 내용으로 하며, ‘반탐물’은 북한 내부에 침투한 적국의 간첩들을 적발하는 내용이 주이다. 정탐물 주인공은 북한의 첩보원이며, 반탐물의 주인공은 보안원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반탐물로 조선중앙TV 드라마 <한 보위일군의 수기>(1999)가 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방탄벽>(2015)은 정탐물에 속한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태양절을 맞아 전국의 영화관과 문화회관에서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을 알릴 때 화면은 주인공 명주를 클로즈업하며 ‘하루낮 하루밤’이라는 영화 타이틀을 표현한다. 초보적인 수준에서 구현한 모션 그래픽이지만, ‘움직이는 텍스트’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kinetic typography)를 시도한 점에서 인상적이다.

명작의 조건이 되는 종자와 주제

첩보원과 보안원이 탐정역을 하는 정반탐물은 북한에서 영화로 많이 만들었던 장르이다. 제국주의 침략세력, 혁명의 계급적 원수들과 정치 군사적 대결을 주제로 하는 정반탐물에서¹³⁾ 적은 미국과 일본, 남한과 같이 북한 밖에 존재한다. 이러한 장르 문법을 따랐던 <방탄벽>(2015)은 해방 전 ‘혁명의 사령부’를 와해하려는 일본을 ‘방탄벽’이 되어 사수하는 북한 첩보원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이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허를 찌른 구성은 북한 주민들의 인기를 크게 얻었다. 수령결사옹위를 주제로 하는 <방탄벽>의 성공은 추리와 스릴러가 복합된 장르가 재미와 몰입을 보장하며 “적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에서 승리”¹⁴⁾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반면에 <하루낮 하루밤>의 적은 “동상이몽, 양방음위하는 정치적야심가, 혁명의 배신자들”¹⁵⁾이다. 당내에 존재하는 ‘야심가’와 ‘배신자’는 곧 반당반혁명종파이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이다.

주인공 ‘라명주’의 원형은 공화국영웅이자 전쟁노병인 ‘라명희’이다. 2013년 전쟁승리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행된 전쟁노병의 위훈을 발굴 정리하는 사업에서 라명희는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 받았다. 2021년에 보도된 라명희 관련 기사는 영화 <하루낮 하루밤>의 대략적인 스토리의 방향을 보여준다.

1956년 8월 전원회의로부터 2년이 지난 1958년, 주사를 잘 놓기로 유명했던 철도병지회부 치료소 간호원 라명희는 간부의 집에 주사를 놓으러 다니면서 무력 부문의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당의 사상과 노선을 험뜯고 비굴한 아첨꾼들과 어울려 이색적인 환경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며 패당을 지어 ‘특대형범죄행위’를 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권총 위협과 폭력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라명희는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죄행을 폭로했다. ‘반당반혁명종파

13) 박철민, “당의 반계급로선 구현과 탐정극,” 『조선예술』, 2016.1., p. 72.

14) 명혁, “탐정물영화의 지성도와 부정인물형상의 격,” 『조선예술』, 2016.8., p. 64.

15) “새로 나온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 시사회 진행,” 『로동신문』, 2022.4.10.

분자들의 음모책동'을 적발한 라명희는 일상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없는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이지만,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은 활화산처럼 불탔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이다. 그리고 전쟁노병을 혁명 선배이자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라명희의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적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는 김정은의 말은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의 종자이자 주제가 되었다.¹⁶⁾ 영화의 배경인 1958년은 2022년을 중첩하며 강력한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1958년’이 내포하는 정치적 상징성

<하루낮 하루밤> 예고편에 등장한 “영웅도시 평양시를 우리 손으로 화려하게 건설하자!”라는 구호는 평양건설 총계획도를 수립했던 1958년이 영화의 배경임을 알려준다. 실제 인물 라명희의 위훈도 1958년 종파투쟁과 관련되어 있다. 영화의 배경과 실제 인물 라명희는 2022년에 북한이 마주한 대내외 곤경과 이를 타파할 해법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8년과 2022년은 각각 ‘10주년’을 중첩한다. 1958년은 북한 정권 창출 10주년이자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해이다. 2022년은 김정은 집권 10주년이자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해로써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하고 과시할 수 있는 적기이다. 최근 노동신문은 1958년에 이룩한 ‘천리마의 기적’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¹⁷⁾ “공화국창건 10돐이 되는 그해에 우리 공화국은 10년전과 대비할수 없는 비약을 이룩”¹⁸⁾한 것처럼, 김정은 집권 10년이 된 2022년은 그동안 산업 부문에서 이룬 국산화·현대화·세계화가 ‘천리마의 기적’에 버금간다는 것을 환유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균형적이고 ‘전면적 발전’을 이루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둘째, 자력갱생의 유산과 전통을 계승하고자 함이다. 1958년이 이룩한 “놀라운 기적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영웅들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뚝지 못할 고난이 무엇이요 이룩하지 못할 승리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우리가 직면한 난관은 크다. 아무리

16) “우리 당의 품에서 영생하는 수령결사옹위전사,” 『로동신문』, 2021.4.27.

17)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 1958년의 대표적인 천리마 기적으로 기양의 ‘천리마 트랙토르’, 덕천의 ‘승리-58형 화물자동차’, 락원의 ‘천리마호 굴착기’, 북중의 ‘붉은별58형 불도젤’을 비롯해 3~4년 걸린다는 ‘해주-하성’ 철길공사가 75일 만에 끝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강계청년발전소, 석탄 증산, 2만 세대 살림집 건설, 농업 부문의 전례 없는 대풍작 등이 언급되고 있다.

18) 강금성, “고귀한 애국의 전통,” 『로동신문』, 2021.9.1.

어렵다고 한들 빈터에서 맨손으로 일떠서던 그때처럼 어렵겠는가”¹⁹⁾라는 메시지를 오늘에 전한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본보기 시대로 호명된 1970년대는 모든 것이 대전성기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belle époque)였다. 1970년대처럼 건설하고 투쟁하자는 구호는 현재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²⁰⁾ 동력을 잃었다. 반면에 1958년은 대외적으로 중소갈등과 자주노선, 대내적으로 권력투쟁이 겹친 상태에서 사회주의 완전개조와 천리마의 기적을 이루었다. 대북제재와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곤란은 전쟁에 준하는 위기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전후의 기적을 안팎으로 만들었던 1958년을 자력갱생의 유산과 전통으로 호명하여 난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하루낮 하루밤>의 종자 ‘수령결사옹위’를 현재화한다. 1958년 라명희가 발휘했던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성을 김정은에 투사하는 것이다.²¹⁾ 김정은 시대의 ‘현대판 종파’는 2013년 장성택 사건이다.²²⁾ 영화가 호명한 1958년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당의 정책과 노선의 ‘결사관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대하는 개인 또는 집단은 ‘반당반혁명종파’로 귀결된다. 또한, 1958년과 같은 기적을 만들려면 현재의 수령인 김정은을 믿고 따라야 하며, 이는 곧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루낮 하루밤>은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혁명적수령관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²³⁾한다고 기대되었다. 수령결사옹위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야 자력갱생으로 대북제재에 대응하고, 전후복구시기와 같이 내핍을 견디며 천리마시대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조이다. 즉, 영화 <하루낮 하루밤>은 1958년의 상황을 2022년에 대입하여 김정은 집권 10년의 성과를 천리마의 기적으로 환유하며, 자력갱생의 유산과 전통을 계승하여 현재의 난관을 이겨내자는 것이며, 김정은의 지위를 수령으로 격상하여 결사옹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19) 방성화, “우리 당은 영웅적인 시대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로동신문』, 2021.4.23.

20) 한은일, “혁명적수령관은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의 근본핵,” 『로동신문』, 2022.4.25.

21) 김학철, “혁명가의 생은 시작도 끝도 한결같아야 한다,” 『로동신문』, 2021.8.14.

22) 2022년 4월 4일부터 8일까지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위대한 연대 불멸의 여정> 제1편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업적을 담았다. 이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공적’은 2013년에 있었던 장성택 사건으로 ‘현대판 종파분자 제거’로 언급되었다.

“북한, 김정은 집권 10주년에 ‘장성택 처형’ 핵심 업적 꼽아,” 『연합뉴스』, 2022.4.8.,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062900504>> (검색일: 2022.4.20.).

23) “새로 나온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 시사회 진행,” 『로동신문』, 2022.4.10.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의 사회문화적 함의

영화는 정치적 상징성은 물론 통속적 재미와 흥미까지 갖췄다. 더불어 사회문화적 함의에도 주목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는 대중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한다. 2020년 12월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외부문화 단속과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다. 외부문화를 접촉하며 다양한 영상물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은 취향과 입맛이 변하고 사상적 이완이 발생했다. 사회통제와 사상강화를 피하면서 대중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영화”²⁴⁾가 초미의 과제였다. 영화창작에서 도식과 경직을 ‘뿌리 뽑아’ 시대변화에 맞게 쇄신한 영화는 대중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면서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선영화’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한다. <하루낮 하루밤>은 영화촬영소 로고를 디지털화하여 글로벌 스타일에 맞게 리더필름을 제작하고, 붓글씨로 제시되었던 타이틀을 초보적이지만 모션 그래픽으로 연출해 보여주었다. TV로 방영된 예고편은 ‘조선영화’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홍보 스타일은 종합적으로 북한 영화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셋째,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다. 주인공이 범죄를 색출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위협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사회를 ‘정상상태(normality)’로 재확립하는 것을 보장한다.²⁵⁾ 즉 체제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형상화한 영화의 문법은 현재와 접속하여 북한 사회에 잠복한 위협, 사회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낸다. 1958년의 수령 결사옹위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창출했듯이, 2022년에는 김정은을 결사옹호하여 현재의 난국을 이겨내자고 정서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영화의 함의라 할 수 있다.

전망: 영화의 서사와 오늘의 중첩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은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이 된 2022년에

24) 리수정, “시대가 요구하고 인민이 기다리는 명작을 내놓자,” 『로동신문』, 2021.11.13.

25) 슬라보예 지젝 지음, 김소연·유재희 옮김, 『뻔뻔하게 보기-대중문화를 통한 라캉의 이해』 (서울: 시각과 언어, 1995), p. 123.

오랜 침체를 깨고 6년 만에 명작으로 발표되었다. 통속적이지만 참신한 형식이 영화를 ‘명작’으로 만들 수 있지만, 수령결사옹위와 계급투쟁을 종자로 한 것이 명작의 요건에는 더 주효했다. <하루낮 하루밤>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영화의 배경인 1958년이 현재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가이다.

최근 북한 언론이 자력갱생의 유산과 전통으로 띄우는 ‘1958년’은 국가 창건 10주년의 해이지만, 영화가 발표된 2022년은 김정은 집권 10주년이 된 해이다. 1958년의 종파투쟁과 천리마의 기적은 김정은 집권기의 종파투쟁과 성과들을 오버랩한다. 북한은 현재를 전후와 동일시하여 전후복구건설 때처럼 내뿜을 견디고 이념적으로 수령결사옹위를 해야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경색된 경제 상황은 체제 불안과 사회적 불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빈터에서 기적을 창조’했던 1958년을 어렵고 힘든 오늘에 다시 재현하려면 ‘필승의 무기’인 사상정신력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김정은 결사옹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이념적 토대를 이룬다.

이러한 정치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하루낮 하루밤>은 예고편에서 스틸러에 가까운 장르 문법을 구사하여 재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디지털로 구현한 영화상표, 감각적인 예고편 편집, 모션을 가미한 영화 타이틀은 상업영화의 일반적인 스타일을 수용한 양상이다. 이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이며, ‘조선영화’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움직임이다.

1958년은 김정은 집권 초기에 사회건설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1970년대 식’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대전성기를 이루었던 때라면, 1958년은 어렵고 곤란했던 형세를 이겼다는 승리의 스토리가 가능한 때이다. 1958년을 배경으로 한 서사물이 어떻게 변주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김정은의 수령으로서의 권위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KINU 202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